

혁신도시 새 명소 '빛가람 전망대' 오늘 개장



빛가람 전망대 외관 전경.



임시 개장 때 모노레일을 타기 위해 전망대를 찾은 관광객들.

빛가람혁신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빛가람 전망대'가 8일 개장한다.

'빛가람 전망대'는 혁신도시 중앙호수공원 52만㎡ 중에서 부지면적 2만4000㎡, 80m 높이의 배메산 정상부에 20.7m 높이로 세워졌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등 혁신도시 시행 3사가 200억원을 투입했다.

전망대 1층 전시동은 혁신도시 홍보관과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삶의 터전을 내어준 원주민들의 삶을 조명하는 이주민 기념관, 기획전시실과 북카페가 있다. 전망타워 4층에는 레스토랑이, 5층에는 전망대

배메산 정상 20m 높이...이주민 기념관·북카페·갤러리 등 96m 돌미끄럼틀 이색 즐길 거리...임시 개장 때 3만명 찾아

와 관광문화갤러리가 설치됐으며, 104면의 넓은 주차장 시설을 갖춰 관람객의 접근 편의성을 높였다.

이용시간은 여름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겨울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로, 설날과 추석, 법정공휴일의 다음날과 매주 월요일은 휴관할 예정이다.

또 모노레일과 돌미끄럼틀이 있으며, 1회 이용시 1인당 1000원 이용료로 전망대

위에 오를 수 있다. 특히 96m의 경사로의 돌미끄럼틀은 국내 최초로 설치되었으며, 해외에서도 중국 장가계에만 설치된 시설로서 이용객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5일부터 29일까지 열린 '2016 세계환경경디자인박람회' 기간 동안에는 3만여명 관람객이 빛가람전망대를 찾아 전시시설을 둘러보는 등 혁신도시 랜드마크로서 나주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할 가능성을 보여줬다.

빛가람전망대 외관은 도시를 아우르는 빛과 남도의 젓줄인 영산강의 흐름을 연출하여 외부에서 전망대를 바라볼때 배메산의 전망과 조화를 이뤄 조형미를 갖도록 하였으며, 탁트인 전망타워에서는 혁신도시 전경은 물론 영암 월출산 등을 바라볼 수 있다. 나주시는 개장식을 계기로 전망대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힐링을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과 혁신도시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설보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나주=손영철기자 ykson@

외식 창업 겁낼 것 없어요

aT, 내달 2~17일 교육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오는 8월 2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 수원시 aT 농식품유통 교육원에서 '외식자 및 예비창업자를 위한 외식 창업 준비 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외식 창업역량 및 적성 검사, 유형별 아이템분석, 국내외 외식산업 트렌드와 전망, 외식업 상권분석 입지 전략, 외식업 서비스 매뉴얼 작성법, 그리고 외식업 원가절감 및 매출활성화 전략 등 외식창업 준비를 위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또 외식프랜차이즈 본사 및 외식업소 현장견학과 유형별 아이템분석, 상권분석 등이 실습으로 진행된다.

마지막 시간에는 외식업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발표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번 교육은 외식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비는 국고에서 지원되어 자부담금 5만원이면 참가 가능하다. 문의 031-400-3527.

/오광특기자 krah@kwangju.co.kr

"공기업을 변화,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한전 청렴콘서트 1000명 참석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지난 6일 오후 2시 본사 대강당에서 '業의 변화 그 시작은 청렴으로부터'라는 주제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청렴콘서트(사진)를 열었다.

이날 콘서트에는 이석한 상임감사위원을 비롯한 경영진과 본사 고위직 임원 및 행동강령책임자와 윤리실전리더, 그리고 전국 사업소 청렴도 담당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청렴콘서트는 기존의 딱딱한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이 음악공연, 상황극 등을 도입해 지난 2013년부터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200여회의 공연을 실시하는 등 매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인기 청렴 프로그램이다.

이날 콘서트에서는 부정청탁 상황에서 벌어지는 사례를 유쾌하게 풀어낸 '고이사의 하루'라는 청렴 상황극과, 공직자의 부패로 인해 어린 생명을 앗아간 '씨랜드 화재 사건' 동영상 상영을 시켰다.

한편 한전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한전 구현'이라는 비전아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윤리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로 올 'Forbes Global 2000' 전력 유틸리티 분야 세계 1위 달성 및 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또한 2014년 공기업

최초로 부패행위자 실명공개 제도를 도입했으며 2015년에는 비행위자에 대한 직위 해제 의무와 징계요구 수준을 해임으로 강화하는 'Knock-down'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음악·만화, 콘텐츠 수출 효과 상품

한국콘텐츠진흥원 보고서 올 1분기 13억 달러 수출

올해 1분기 문화예술 콘텐츠산업의 매출과 수출이 모두 늘어난 가운데 음악·만화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7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펴낸 '2016년 1분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예술 콘텐츠산업의 매출액은 23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늘었다.

분야별 증가율은 콘텐츠솔루션(12.9%), 캐릭터(11.1%), 지식정보(9.2%) 등의 순서다.

1분기 콘텐츠산업의 수출은 13억

6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한 가운데 특히 음악(57%), 만화(44.4%), 애니메이션(25.3%) 등의 신장세가 컸다.

이 같은 매출과 수출 증가에 힘입어 콘텐츠산업 종사자가 61만 8000여명으로 작년보다 0.4% 늘었다.

또 콘텐츠산업 성장사들의 1분기 매출이 6조5306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2% 늘었고, 영업이익이 7758억원으로 20.6% 증가했다. 이들 성장사들의 수출도 24.5% 늘어난 5억 4894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번 보고서는 통계청과 한국은행 등의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고 콘텐츠 성장사 105개와 비상장사 1200개에 대한 경영 실태 자료를 분석해 작성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국립전파연구원 오늘 50주년 기념식

최양희 미래부 장관 참석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유대선)이 8일 오전 11시 빛가람혁신도시 본원 전파홀에서 개원 50주년 기념식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개원 5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전파의 꿈'을 주제로, 대한민국 전파연구 역사를 기념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 광주·전남자치단체장 등 주요 ICT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유공자 포상과 축하 영상이 상영되며, 국립전파연구원 향후 비전을 담은 영상과 퍼포먼스 등이 진행된다.

부대행사로서는 지난 50년간 국내 전파

연구 발전취와 성과를 살펴볼 수 있는 '사진회고전'이 운영된다.

특히 윤현보 동국대 교수의 '전파의 과거·현재·미래'와 김형준 숭실대 교수의 '고효율 무선전력 전송시스템', 전파연구원 김영규 연구관의 '우주환경과 우주전파센터의 활동' 등 국내·외 전문가 6명이 전파의 과거·현재·미래 모습부터 신기술분야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발표하는 '전파연구 워크숍'도 마련돼 있다.

유대선 원장은 "개원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IoT(사물인터넷) 세상을 선도하는데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국립 연구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 강사단 선발

자격 소지자 25일까지 접수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업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지원하는 전문강사단 100여명을 선발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방 기업의 정보보호 교육 기회를 늘리고 양질의 강사를 선발하는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강사를 선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전문강사단의 활동 기간은 다음 달부터 1년이다.

이 기간 강사단은 전국 5개 권역(수도권·경상권·전라권·충청권·강원권)별로 나누어 교육신청 기업과 협력해 정보

통신방법이 의무화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진행한다.

지원서는 이달 18~25일 이메일로 받는다. 3년 이상의 개인정보보호업무 경력, 개인정보관리사(CPPG) 및 개인정보보호인증(PIMS)심사원 자격증을 모두 갖춰야 지원할 수 있다.

선발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i-privacy.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인터넷진흥원은 전문강사단을 1년마다 재선발하고, 재선발 시 기존 지역별 강사단 실적을 반영해 권역과 인원을 조정할 계획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제5회 2016 청소년축제

The 5th Youth Festival

2016. 7. 23 (토) 10:00~19:0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 민주광장 (옛 도청 분수대광장)

주최: 광주일보사 · 아시아문화

후원: 교육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광주지방경찰청

No Bullying, Yes Bling!

2016. 7. 23 (토) 10:00~19:00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5.18 민주광장 (옛 도청 분수대광장)

- ▶ 대학선택을 위한 주요 대학 입시홍보관
- ▶ 진로 탐색 및 적성 상담
- ▶ 학교폭력 상담
- ▶ 신나는 체험활동관
- ▶ 대학생 인기 댄스, 밴드 공연
- ▶ 경품 이벤트

경연대회 모집 안내

교육부 장관상 및 시·도 교육감상 수여

모집분야 | 공연예술분야(댄스, 음악, 풍물 등) 3:3 길거리 농구대회

대상 | 중·고등학교 및 청소년(참가비 무료)

모집기간 | 7월 18일까지

문의전화 | 062.220.0555 / 010.7174.1257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youngkwangju>